



거북꼬리



매립지에서 피는 야생화

2008 드림파크 야생식물전시회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야생화 전시회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식물, 돌연변이식물 등 10개 테마 1,000여 작품이 전시됐다.

또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환경문화체험장, 전통놀이원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인근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관람이 가능하여 가족과 함께 하루 봄나들이 코스가 되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내에 약86만㎡(26만평)의 야생화단지에서 주로 자연속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야생식물 위주로 총 800여종 1,000여점을 전시했다.

특히 식용, 약용식물, 멸종위기식물, 귀화식물, 무늬식물, 분경원 등 10개의 테마별로 모아 전시하여 볼거리가 풍성하며 식물의 이름, 용도와 특징 등을 관찰하여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또한, 부대행사로써 환경문화체험장, 그린존, 환경놀이원, 포토존, 전통놀이원 등 관람객들에게 충분한 즐길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국내 유일의 자생식물 전문 전시관인 국립생물자원관도 연계 관람할 수 있어 가족의 하루 봄나들이 코스로도 손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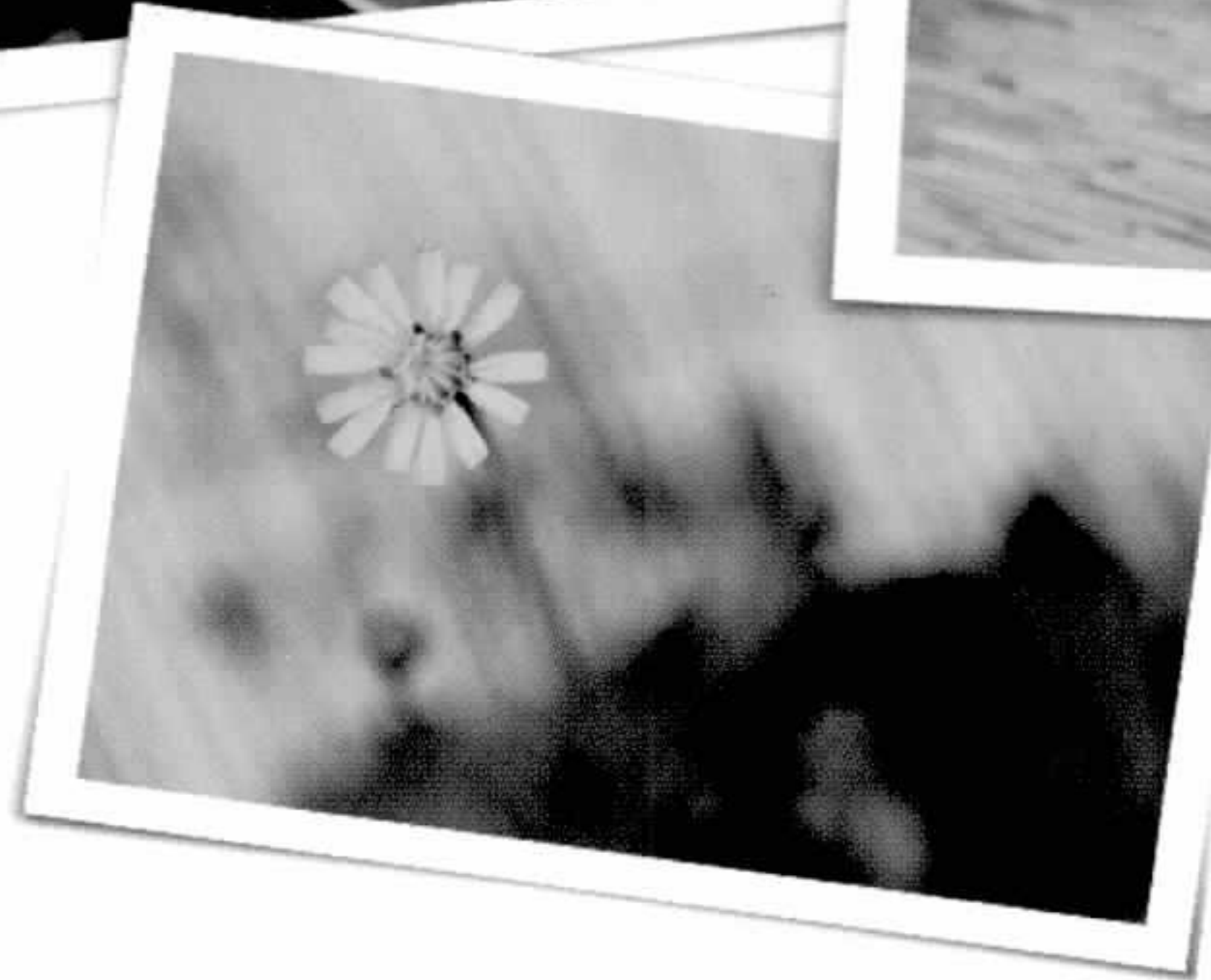
공사 관계자는 금번에 전시된 야생화들은 수도권매



산마늘



자란



애기민들레

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 생산한 열을 이용하여 겨우내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재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중 5월 18일(일)에는 인천과 김포 지역 어린이 500여명과 가족이 참가하는 「제8회 드림파크 그림그리기대회」가 주민체육공원 잔디축구장

에서 개최했다.

그림그리기 대회장에서는 인기 개그맨을 초청하여 보물찾기, 재활용 소재악기를 활용한 퍼포먼스(노리단 공연), B-Boy 공연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에어바운스 등도 설치하여 즐거움을 더욱 증가 시켜줄 수 있었다. ☺

